

장흥 방언의 모음 조화

강 회 숙
(조선대학교)

Kang Huisuk. 1996. *The Vowel Harmony of Changhŭng Dialect. Linguistics* 4, 1-24.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the vowel harmony occurring between verb stem and the '-a X' ending and this basis is used to expla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vowel harmony and the direction of the change in Changhŭng Dialect.

The cases that the vowel of stem-final syllable has the light harmonic feature and the ending becomes '-a X' are: First, when the vowel final syllable of the stem is /o/. Second, when the vowel of the stem-final syllable is an open-syllable stem with /a/. Third, in specific cases when the vowel of the stem-final syllable /ɔ/. Finally, the stem of p(ㅍ) -irregular verbs.

That the phonetic ending '-ə X' follows the vowel of the stem-final syllable corresponds to almost all vowels except for the case that is followed by '-a X' ending. That is to say, when the vowel of the final syllable is a closed syllable with /a/ and the vowel is the stem with /ə, u, E, ɔ, ɪ, i, i/, the ending is changed to '-ə X'. This aspect coincides with the fact that the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is developing toward the dark vowel. This is shown by the examples when the vowel of the final syllable is changed to the stem of closed syllables and when the conventional neutral vowel /i/ is changed to the dark vowelizing. (Chosu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남 장흥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 조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 방언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음 조화의 발달 과정과 그 변화 방향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의 역사적 단계에서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 및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 결합의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기왕에 이루어진 학계의 연구 성과(이승녕 1955; 이기문 1968, 1979; 김완진 1971a, 1980 등)를 토대로 한다면, 16세기 전까지 국어의 모음 조화는 음성모음 또는 전설모음 /u, i, ə/와 양성모음 또는 후설모음

2 강 회 속

/o, ʌ, a/ 의 두 계열로 이루어진 구개적 조화를 이루었으며, /i/는 중성모음 또는 중립모음이었다. 당시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형태소 경계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러나 현대 중부 방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 때, 모음 조화는 더 이상 규칙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부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형태소 경계에서는 용언 어간과 '-아/어'계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만 모음 조화가 유지되고 있다.

모음 조화와 관련하여 중부방언에서 수행되고 있는 언어 변화는 방언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여 개인적 언어 변화를 겪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어에서 수행되고 있는 언어 변화 가운데 하나로서 모음 조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국어의 하위 지역방언별로 모음 조화의 실현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 자료 조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지점은 전남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장흥군 대덕읍이다. 자료의 조사는 1996년 11월 1달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모음 조화와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언어변화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보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40세 이상의 화자를 상층 화자로, 40세 이하의 화자를 하층 화자로 선정하여 두 세대간에 어떠한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한 것이다. 체보자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성명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주소
신차옥	67	남	국졸	농업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도청리 170
김종채	65	남	국졸	농업	" 384
박야실	60	여	국졸	농업	" 163
이정덕	57	여	무학	농업	" 175
송남신	35	남	대졸	공무원	" 신월리 340
박희경	34	여	고졸	사무직	" 도청리 250
김민숙	31	여	대졸	사무직	" 분토리 18
강연수	29	남	대졸	상업	" 도청리 165

2. 장흥 방언의 모음 체계

장흥 방언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음 조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모음 음소의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음 체계는 최소 대립쌍의 존재를 통하여 확

인되는데, 세대에 따라, 즉 상층 화자와 하층 화자에 따라 상이한 모음 체계를 갖는다. 두 세대간의 모음 체계를 이중체계(diasystem)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장흥 방언의 모음 체계

	O/i ~u/		O/E ~ö/	
O(상층), Y(하층)//	-----	≈	-----	≈ i ≈ ə ≈ a ≈ o ≈ u//
	Y /i/		Y /E/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흥 방언을 비롯한 서부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에서는 표준어에서의 전설 중모음 /e/와 전설 저모음 /ɛ/가 변별되지 못하고, /e/와 /ɛ/의 합류음 /E/로 실현된다.¹

또한, 위의 모음 체계에 의하면 상층 화자의 모음 체계에서 보이는 전설 원순모음 계열의 단모음 /ö/, /u/가 하층 화자의 모음 체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지역 방언의 역사적 단계에서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던 /we/, /wi/가 단모음화함으로써 나타난 모음 /ö/, /u/가 상층 화자의 모음 체계에서는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반면에, 하층 화자의 체계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하층 화자의 경우, 단모음 /ö/, /u/가 이중모음, 곧 /wE/, /wi/로 발음되거나, 원순성이 약화되어 나타난 비원순모음 /E/, /i/로 각각 발음되는 것이다.

3. 국어 모음 조화의 특징

모음 조화(vowel harmony)란 일정한 영역, 특히 특히 단어 내에 있는 모음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화 자질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과정을 말한다. 모음 조화와 관련되는 조화 자질로는 [back], [round], [high], [ATR] 등이 있다(Katamba 1989:211). 이러한 조화 자질들은 분절음과는 다른 별개의 층렬에 위치하여 단어 내의 모든 모음에 확산됨으로써 한 언어의 모음을 상호 배타적인 두 부류로 구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Igbo어에서는 모음이 [+ATR]인 A류, 즉 [i, e, u, o]와 [-ATR]인 B류, 즉 [ɪ, a, ɔ, ɔ]로 구분되고, 단어에 사용되는 모든 모음들은 대개 이

¹표준어에서의 /e/는 경우에 따라 [i]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주로 노년층의 발화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거의 [E]로 대응된다.

²최전승(1986: 69-89, 1987)에서 검토하고 있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따르면, '의'와 '위'의 단모음화는 'oy > we > ö', 'uy > wi > ü'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oy/의 단모음화는 /we/의 단계를 거쳐 19세기 후기 이전에 /ö/로, /uy/는 19세기 후기 이후에 /wi/ > /ü/와 같은 변화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강 회 속

두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된다. Igbo어에서 [ATR] 자질이 단어의 모음에 확산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모음 조화 총렬	[+ATR]	[-ATR]
	∴ ∴ ∴	∴ ∴ ∴
분절음 총렬	o zo ro → [o zoro]	o do ro → [ɔdoro]
	‘그가 했다’	‘그가 잡아당겼다’

이러한 조화 자질 외에, 국어의 모음 조화를 설명하는 데는 전통적으로 양성파 음성이라는 조화 자질이 사용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양성파 음성의 조화 자질에 의해 16세기 이전 단계의 국어 모음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 양성 모음: /ʌ, a, ɑ/
음성 모음: /i, ə, u/
중립 모음: /ɨ/

만일 16세기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음 체계가 이른바 모음 추이(vowel shift)를 겪기 전의 단계였다고 한다면(김완진 1963, 1978), 이 시기에 있어서의 양성파 음성의 대립이란 달리 [back]이라는 자질로 대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음 조화가 시작될 단계에서 국어는 [back] 자질을 조화 자질로 갖는, 소위 구개적 조화(palatal harmony)를 가진 언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개적 조화를 보여 주었던 국어의 모음 조화는 16세기 이후에 수행된 두 가지 중요한 모음 변화로 인하여 붕괴되기에 이른다. 즉, 16세기 후반에 일어난 비어두 음절의 /ʌ > /i/의 변화와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난 비어두 음절의 /ɑ/ > /u/의 변화는 국어의 모음 조화를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아’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만 모음 조화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³

용언의 어간과 ‘-아/어’ 계열의 어미의 통합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는 중부방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화 부류를 보인다.

- (4) 양성 모음: /a, ɑ/
음성 모음: /ə, u, i, i, e, ɛ, ö, ü/
중립 모음: 비어두 위치의 /ɨ/

³남광우(1973)에서는 현대국어의 모음조화가 현실적으로 그 규칙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루었다. 형태소 내부의 경우, 의성·의태어 내에서조차 모음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으며, 부사형 어미 ‘-아/어’ 및 과거시제 ‘-았/었-’의 경우도 ‘-어’, ‘-었-’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대 중부방언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음의 조화 자질들은 이들을 일정한 자연 부류(natural classes)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 물론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를 재구하는 자리에서 ‘舌縮’에 의한 대각 체계를 가정하고 있는 김완진(1978)에서는 약화된 형태로 남아 있는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 역시 ‘舌縮’이라는 음성 자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舌縮’이라는 음성 자질이 지니는 일반성의 문제가 아직은 불투명한 이상, 국어의 모음 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성파 음성의 대립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Igbo어의 설명에서 예로 든 비단선적 음운 이론의 틀 안에서, 국어의 모음 조화는 본질음과는 별도의 자립적 층위에 존재하는 양성파 음성의 조화 자질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장흥 방언의 모음 조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언어 현상으로서의 국어의 모음 조화는 주로 용언 어간과 결합되는 ‘-아/어X’형 어미의 교체로 통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모음 조화는 일반적으로 어간 끝음절 모음이 지니는 조화 자질의 확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미의 교체를 예측하는 데 있어 어간 끝음절 모음이 어떤 종류의 모음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국어의 다른 지역 방언의 모음 조화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소강춘 1989; 최명옥 1992; 기세관 1996 등), 모음 조화가 어간의 음절 수나 어간 끝음절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의 모음 조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방언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흥 방언의 모음 조화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활용형의 형태음소론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되는 어간 끝음절 모음의 조화 자질을 바탕으로 하되, 어간의 음절수나 음절 구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 ‘-아X’로 실현되는 경우

활용형의 어미가 ‘-아X’로 실현됨으로써 어간 끝음절 모음이 양성파의 조화 자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1 어간 끝음절 모음이 /α/인 경우

- (5) a. 보-(見): [poasə]~[pwazə]~[pasə]
 고-(渴): [koasə]~[kwa:sə]~[ka:sə]
 꼬-(纒): [k'oasə]~[k'wa:sə]~[k'a:sə]

6 강 회 속

- b. 돌-(廻): [torasə]
- 꿍-(廻): [kolmasə]
- 볶-(煎): [pok'asə]
- 밝-(明): [polgasə]
- 꽃-(挿): [k'o'fasə]

(6) a. 돌보-(佑): [to:lbwa:sə]~[to:lbwa:sə]

 옛보-: [jæt'pwa:sə]~[jæt'pa:sə]

b. 들볶-: [təlpok'a:sə]

(5)의 예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로, (5a)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예이고, (5b)는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예이다. 또한 (6)은 주로 복합동사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어간이 2음절인 예인데, (6a)는 어간이 모음으로, (6b)는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에서 모음 /a/는 음절 수나 음절 구조와 관계 없이, 항상 어미 '-아X'와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방언에서 모음 /a/는 양성의 조화 자질을 유지하고 있는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4.1.2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 /a/가 음절 수나 음절 구조와 상관 없이, 항상 양성의 조화 자질을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음 /a/는 음절 구조에 따라 상이한 조화 자질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7) a. 가-(去): [kasə]

 자-(眠): [časə]

 사-(買): [sasə]

 차-(滿): [c^hasə]

b. 나가-: [nagasə]

 박차-: [pak^hasə]

 불타-: [pult^hasə]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용언어간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7)과 같이 개음절 어간의 경우는 음절 수와 관계 없이 모음 /a/가 양성의 조화 자질을 지니므로써, 어미 '-아X'와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서 (7)의 활용형들은 '/가 + -아서/ → [kasə]', '/자 + -아서/ → [časə]' 등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간 끝음절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동일 모음 삭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 /a/는 양성의 조화 자질

을 지남으로써 어미가 '-어X'로 실현된다(4.2.1 참조).

4.1.3 어간 끝음절 모음이 /ɔ/인 경우

/ɔ/를 어간 끝음절 모음으로 갖는 용언으로는 '되-, 씌-, 켜-, 피-, 꺾-'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되-'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어간들은 활용시에 모두 어미 '-어X'를 취함으로써 음성 조화 자질을 갖는 반면에(후술 참조), (8)의 활용예가 보여 주듯이, '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양성 자질을 갖고 있다.

(8) 되-(爲): [tɔa]~ [twEa]~ [tEa] (8)' [tɔə]~ [twEə]~ [tEə]

이와 같이 '되-'의 어간 끝음절 모음 /ɔ/가 양성 자질을 갖는 것은, 모음 /ɔ/가 역사적으로 양성의 조화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oy/에서 발달한 것으로, '되-'가 /oy/의 조화 자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간 끝음절 모음으로 /ɔ/를 갖는 다른 어휘들의 경우에는 '/oy/ > /ɔ/'의 단모음화 이후,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음성모음화를 수행하였음에 반하여, '되-'는 그러한 언어적 개신을 거부하고 보수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8)'의 예에서 보듯이, 화자에 따라서는 '되어'([tɔə])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음성형의 확산이 진행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4.1.4 'ㅂ' 불규칙 동사 어간의 경우

용언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양성의 조화 자질을 갖는 것으로는 또한 'ㅂ' 불규칙 동사의 어간이 있다.

- | | |
|---|---------------------------|
| (9) a. 돕-(助): [towasə]~[toasə] | |
| 곱-(屬): [korwasə]~[kotasə] | |
| b. 출-(察): [c ^h uwasə]~[c ^h uasə] | b' [c ^h uwasə] |
| 덥-(熱): [təwasə]~[taasə] | [təwasə] |
| 맵-(辛): [mEwasə]~[mEasə] | [mEwasə] |
| 밧-(憎): [miwasə]~[miasə] | [miwasə] |
| (10) a. 가깝-(近): [kac ^h awasə]~[kac ^h asə] | a' [kak'awasə] |
| b. 떠럽-(濼): [t'ərawasə]~[t'ərəsə] | b' [t'ərawasə]~[t'əlbasə] |
| 뚜겁-(厚): [t'uk'əwasə]~[t'uk'əsə] | [tuk'əwasə] |
| 뜨겁-(熱): [t'igəwasə]~[t'igəsə] | [t'igəwasə] |
| 무겁-(重): [mugəwasə]~[mugəsə] | [mugəwasə] |
| 여럽-(恥): [jərawasə]~[jərəsə] | |

8 강 회 속

c. 아름답-(美): [arimdawasə]	c' [arimdawasə]
징그럽-: [ʒingrəwasə]~[ʒingrasə]	[ʒingrəwasə]
어지럽-(亂): [əʒirəwasə]~[əʒirasə]	[əʒirəwasə]
꺼뜨럽-: [k'ək'irəwasə]~[k'ək'irəsə]	[k'ək'irəwasə]
촌시럽-: [c ^h onʒirəwasə]~[c ^h onʒirasə]	[c ^h onsirəwasə]
시끄럽-(騷): [ʃik'irəwasə]~[ʃik'irəsə]	[ʃik'irəwasə]

위의 예들은 소위 '비' 불규칙 활용 동사의 활용형으로서, (9)는 어간이 1음절인 예이고, (10)은 어간이 2음절 이상인 예이다.

'비' 불규칙 용언의 어간은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어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기저 어간 이형태를 갖게 되는데, 자음 어미 앞에서는 //Yp-//를, 모음 어미 앞에서는 //Yu-//를 기저형으로 갖는다(최명옥 1984).⁵ 따라서, '-아/어'계의 어미 앞에서는 기저형이 //Yu-//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9a, b), (10a, b, c)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 방언에서는 거의 모든 '비' 불규칙 동사의 어간 다음에 연결되는 어미가 어간 끝음절 모음의 종류나 어간의 음절 수와 관계 없이 양성(陽性)의 조화 자질을 지니는 '-아X'형으로 실현되고 있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활용형들은 어간 다음에 '-어X'형의 어미를 연결시키고 있는 (9b')나, (10a', b', c')의 활용형들과 분명한 대조를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9b')나, (10a', b', c')의 활용형들은 화자와 말의 스타일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형들로서 표준 변이형과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주로 하층 화자의 발화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변이형들의 출현은 표준어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9a, b), (10a, b, c)의 예에서 활용형의 어미가 '-아X'로만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명옥(1992)에서는, 현대 중부방언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부사형 어미의 재구조화 과정을 '-아X >-아/어X >-어X' 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모음 조화에 의한 어미의 교체형 '-아/어X'는 기원적으로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아X'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고,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가 형태소 경계로 확대됨으로써 '-아/어X'와 같은 이형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⁴활용 어미 '-아/어X'나 기저 어간 형태 //Yp-//에서 X,Y는 어미의 모음 '-아/어' 다음에 연결되는 요소나 어간 말음 -p 앞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⁵모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비' 불규칙 용언의 기저형을 /Xu-/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일 뿐, 이러한 기저형의 설정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물론 아니다.

⁶형태소 경계, 즉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는 기원적으로 모음조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양성모음 단일형의 접미사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기문(1979)를 비롯하

만일 장흥 방언 또한 이와 동일한 과정을 밟음으로써 어미의 이형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 지역 방언이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의 어휘화된 이형태 /Yu-/가 어미로서 '-아X'만을 취하는 것은 모음 조화에 의한 '-아X>-어X'의 변화가 'β>w'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은 어간 끝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인 1음절 어간 '굽-', '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X' 형태의 어미가 연결됨으로써 모음 조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11) 굽-(灸): [kuwəsə]~[kwəsə]~[ko:sə]
 늬-(臥): [nuwəsə]~[nwəsə]~[no:sə]⁸

이와 같은 활용형의 존재는 이 지역방언에서 나타나는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이 본래부터 모음 조화를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현대 장흥방언에 선행하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일종의 양성 모음화가 일어났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특히 어간이 2음절인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된 이러한 양성 모음화는 결국 어미의 교체형을 단일화함으로써 화자로 하여금 어간의 모음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교체형을 기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4.2 '-어X'로 실현되는 경우

4.1에서 검토한 어미 '-아X'를 취하는 어간을 제외한 모든 어간 끝음절 모음이 '-어X'를 어미로 택하게 된다. 이를 모음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경우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 /a/가 양성의 조화 자질을 지님으로써 어미가 '-아X'로 실현되었던 것과는 달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환경에서 모음 /a/는 다음 (12)의 예에서와 같이, '-어X'를 어미로 택하고 있다.

- | | |
|----------------------|---------------|
| (12) 낫-(癒): [nasəsə] | (12)' [naəsə] |
| 얹-(薄): [yalbasə] | [yalbasə] |
| 뒹-(修): [t'ak'əsə] | [t'ak'əsə] |
| 담-(醬): [taməsə] | [taməsə] |

여 이근규(1986) 등에서 논의되어왔던 것이다.

⁷ '-아X>-어X'에 의한 이형태의 발생에 대해서는 최명옥(1992)를 참조.

⁸ [ko:sə], [no:sə]와 같은 형태의 출현에 대해서는 4.2.3을 참조.

10 강 회 속

맡-(任): [mat ^h asə]	[mat ^h asə]
알-(知): [arasə]	[arasə]
갈-(磨): [karasə]	[karasə]
갈-(同): [kat ^h asə]	[kat ^h asə]

이와 같이 어간의 음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모음이 각기 다른 조화 자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모음의 조화 자질이 음성 자질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중부방언에서도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폐음절의 경우에는 '-어X' 계열의 어미가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남광우 1973:103).

그러나 화자에 따라서는 (12)와 함께 모음 /a/가 양성 of 조화 자질을 유지하고 있는 (12)'와 같은 어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 두 어형이 변이형의 형태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2.2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경우는 항상 '-어X' 계열의 어미를 취하고 있어, /a/가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13) 건-(步): [karasə]
 덜-(除): [tarasə]
 덮-(蓋): [tap^hasə]
 절-(跋): [čarasə]
 젓-(漕): [časəsə]

4.2.3 어간 끝음절 모음이 /u/인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이 /u/인 경우는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 상이한 조화 자질을 갖는다. 우선 1음절 어간의 경우, 모음 /u/는 다음과 같이 음절 구조와 상관없이 '-어X' 계열의 어미와 결합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2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어간 끝음절 모음 /u/가 양제열의 어미와 모두 결합함으로써 중립모음으로 기능한다(4.3.2 참조).

- (14) a. 두-(置): [tuasə]~ [twə:sə]~ [to:sə]
 주-(興): [čuasə]~ [čwə:sə]~ [čo:sə]
 꾸-(夢): [k'uəsə]~ [k'wə:sə]~ [k'o:sə]
 누-(尿): [nuasə]~ [nwə:sə]~ [no:sə]

- b. 줄-(縮) : [čurasa]
 뽕-(質) : [t'urasa]~ [t'ūrEsa]
 울-(淚) : [urasa]
 물-(問) : [murasa]
 뭍-(東) : [muk'asa]

위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1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모음 /u/가 음성 모음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tuasa] '두어서', [čuasa] '주어서', [k'uasa] '꾸어서' 등의 변이형으로 [twa:sə] ~ [to:sə], [čwə:sə] ~ [čo:sə], [k'wə:sə] ~ [k'o:sə]가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음운 과정이 적용된 결과이다.

	'두어서'	'주어서'	'꾸어서'
(15) 기저형	/tu + asa/	/ču + asa/	/k'u + asa/(음성형 ①)
활음화	twasa	čwasa	k'wasa
보상적 장음화	twa:sə	čwə:sə	k'wə:sə (음성형 ②)
축약	to:sə	čo:sə	k'o:sə (음성형 ③)

이와 같이 음성형 ①에 활음화와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는 것은 모음 충돌(hiatu)s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택되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다.⁹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 음성형 ②에 또 다시 모음 축약이 적용되어 [to:sə], [čo:sə], [k'o:sə] 등과 같은 음성형이 실현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문 일인데, 이는 남부 방언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¹⁰

4.2.4 어간 끝음절 모음이 /E/인 경우

모음 체계를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지역 방언에서는 표준어의 /e/와 /ɛ/가 변별되지 못하고 두 음소의 합류음 /E/로 실현된다. 편의상 표준어에서의 음소를 기준으로 나누어 /E/를 어간 끝음절로 갖는 어휘의 활용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⁹물론 여기에서 활음화 다음에 일어나는 보상적 장음화는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모음이 활음화에 의해 성절성을 잃어 버린 데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가 수행된 것이다.

¹⁰이와 같은 축약 현상은 전북방언을 대상으로 방언의 분화물 다루고 있는 소강춘(1989:7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서 /wa/ → [ɔ]를 축약이라고 보는 것은 /w/의 [+labial] 자질이 /a/에 확산되어 /a/가 [+labial]의 대립적인 [ɔ]로 축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강 회 속

- (16) 데-(火傷): [tEəsə]~[t'E:sə]~[tiəsə]~[ti:sə]
 배-(割): [pEəsə]~[p'E:sə]~[piəsə]~[pi:sə]
 매-(負): [mEəsə]~[m'E:sə]~[miəsə]~[mi:sə]
 댤-(離): [t'Eəsə]~[t'E:sə]~[t'iasə]~[t'isə]
- (17) a. 매-(結): [mEəsə]~[m'E:sə]
 캐-(採): [k^hEəsə]~[k^hE:sə]
 개-(晴): [kEəsə]~[k'E:sə]
 재-(測): [čEəsə]~[č'E:sə]
 배-(孕): [pEəsə]~[p'E:sə]
- b. 달개-(誘): [talgEəsə]
 포개-(疊): [p^hogEəsə]
 보내-(送): [ponEəsə]
 보태-(加): [pot^hEəsə]
 손대-(觸手): [sondEəsə]
 놀래-(驚): [nollEəsə]

(16)의 예는 표준어의 모음 /e/에 대응하는 어휘의 활용예이고, (17)의 예는 표준어의 모음 /ɛ/에 대응하는 어휘의 활용예이다. 위의 예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음소의 합류음 /E/는 이 지역방언에서 음절 수와 무관하게 ‘-어X’와 결합하고 있어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의 예에서 1음절 어간인 (16)과 (17a)의 경우에는, [tEəsə]~[t'E:sə] / [tiəsə]~[ti:sə]나 [mEəsə]~[m'E:sə] 등과 같은 예에서처럼, 어간 끝음절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수의적으로 보상적 장음화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2음절 어간인 (17b)의 경우에는 보상적 장음화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2음절 이하에서는 음장이 음소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하나의 예이다.

4.2.5 어간 끝음절 모음이 /ɔ/인 경우

앞에서 우리는 어간 끝음절 모음이 /ɔ/인 어휘 가운데 ‘되-’는 양성(陽性)의 조화 자질을 가지는 반면, 그 밖의 다른 어휘들은 음성(陰性)의 조화 자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8)은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 (18) 쇠-(過): [söəsə]~[sö:sə]~[sEəsə]~[sE:sə]
 죄-(繫): [čöəsə]~[čö:sə]~[čEəsə]~[čE:sə]
 째-(薰): [č'öəsə]~[č'ö:sə]~[č'Eəsə]~[č'E:sə]
 꺾-(誘): [k'öəsə]~[k'ö:sə]~[k'Eəsə]~[k'E:sə]

위의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ɔ/를 어간 끝음절 모음으로 가진 어휘들이 대부분 통시적인 음성모음화를 거쳐 '-어X' 계열의 어미를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들은 음성 모음화라는 개신적 언어 변화가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4.2.6 어간 끝음절 모음이 /u/인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 /u/ 역시 어간 끝음절 모음이 /ɔ/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성형 어미 '-어X'와 결합한다.

- (19) 쥐-(携): [ç'usə] ~ [ç'usə] ~ [ç'isə]
 뒤-(圖): [t'usə] ~ [t'usə] ~ [t'isə]
 쉬-(休): [s'usə] ~ [s'usə] ~ [s'isə]
 꺾-: [k'usə] ~ [k'usə] ~ [k'wisə] ~ [k'isə]

4.2.7 어간 끝음절 모음이 /i/인 경우

어간 끝음절 모음이 /i/인 어휘들은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조화 자질을 갖는다. 즉, 1음절 어간의 경우는 (20)의 예에서와 같이, 어간의 음절 구조에 관계 없이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지만, 어간이 2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 중립모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4.3.1참조).

- (20) a 꼬-(燒): [k'asə]
 뜨-(開): [t'asə]
 스-(酸): [sasə]
 b. 꺾-(割): [k'isəsə]
 늦-(晚): [ničəsə]
 뜰-(塲): [t'idəsə]
 끌-(延): [k'irəsə]

4.2.8 어간 끝음절 모음이 /i/인 경우

전통적으로 중립모음이라고 불렀던 어간 끝음절 모음 /i/가 이 지역 방언에서 보여주는 모음 조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24)	단어 예	'기 + 어서'	'이 + 어서'	'지 + 어서'
	기저형	/ki + əsa/	/i + əsa/	/çi + əsa/
	/a/ 탈락	kisə	_____	_____
	활음화	_____	jəsə	_____
	/i/ 탈락	_____	_____	čəsə
	보상적 장음화	kisə	_____	_____
	음성형	[kisə]	[jəsə]	[čəsə]

이러한 도출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21a)의 어휘들은 어미의 첫 음 /a/가 탈락한 후, 보상적 장음화가 실현되는 반면, (21b)의 경우에는, 어간 모음 /i/가 활음화하여 [j]로 실현된다. 이어서 (21c)의 경우에는 /a/탈락이나 어간 모음의 활음화 대신에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 음운 과정을 겪게 된다." (21a)와 같이 활음화 대신에 어미의 /a/가 탈락한 후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동남방언이나 여수방언(기세관 1996:153) 등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남부방언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간이 2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23)의 예는 1음절 어간인 (21)의 예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23a)의 예는 어간의 끝모음 /i/가 어미의 첫 음 /a/와 연결되는 경우인데, 이 두 음은 /E/로 축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운 과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i + a/ → [ya] > [E]'라는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23b)의 경우는 (21b)와 동일하게 어간 말음 /i/가 /a/ 앞에서 활음화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이 (23a)의 어휘들과 대조되는 음운 행위를 보이는 것은 어간 말음 /i/ 앞의 환경이 '-ll-'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3c)의 경우에는 (21c)와 동일한 환경에서 어간의 마지막 모음 /i/가 탈락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방언에서 어간 끝음절 모음 /i/는 어미의 첫 음 /a/와의 통합 과정에서 어휘 부류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① 어간 끝음절 모음 /i/의 탈락, ② /i/의 활음화, ③ 어미의 첫 음 /a/의 탈락, ④ /i + a/ → [ja] > [E]와 같은 다양한 음운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¹¹(21c)의 예가 활음화하지 않는 것은 어간 끝음절의 두음이 치찰음일 경우에 나타나는 국어의 음소배열 제약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치찰음 아래에서의 어간 말음 /i/가 활음화하지 않고 탈락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만일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çi + ə → čjə'와 같이 활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18세기에 치찰음 아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ə]와 [jə]의 중화에 의하여 [čə]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소강춘 1989:73 참조).

16 강 회 속

4.3 '-아X' 또는 '-어X'로 실현되는 경우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양제열의 모음, 즉 양성모음 계열의 어미 '-아X'와 음성모음 계열의 어미 '-어X'를 둘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어간의 모음이 중립모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지역방언의 경우, 중립모음은 어간의 모음이 특정 위치에서만 중립모음으로서 기능하는 부분 중립모음¹²의 성격을 지니는데, 비어두 음절 위치에 나타나는 어간 모음 /ɨ/, /u/가 바로 그것이다.

4.3.1 어간 끝음절 모음이 /ɨ/인 경우

(20)의 예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1음절 어간에서의 어간 끝음절 모음 /ɨ/는 음성모음으로서 '-어X' 계열의 어미를 취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음절 어간에서의 어간 끝음절 모음 /ɨ/는 다음과 같이 불투명한 조화 자질을 갖는다.

- (25) a. 걸르-(漚): [kalləsə]
 깔르-(解): [k'illəsə]
 눌르-(押): [nulləsə]
 두르-(團): [tulləsə]
 물르-(軟): [mulləsə]
 흘르-(流): [hilləsə]
 b. 몰르-(不知, 渴): [molləsə]
 블르-(塗): [polləsə]
 올르-(上): [olləsə]
(26) a. 헤프-(浪): [hɛp^həsə]
 슬프-(哀): [silp^həsə]
 기쁘-(悅): [kip^həsə]
 b. 고프-(飢): [kop^həsə]
 보듬-(抱): [podiməsə]
(27) 갈르-(分): [kalləsə]~[kalləsə]
 따르-(從): [t'arasə]~[t'arəsə]
 아프-(痛): [ap^həsə]~[ap^həsə]

¹²부분 중립모음이란 완전 중립모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위치에서만 중립모음의 성격을 보이는 모음을 말한다(이기문 1972 b:139). 다시 말해, '부분중립'이란 어떤 한정된 조건에서만 중립을 지키는 모음으로 '완전중립'이 합류의 결과라면, '부분중립'은 부분적 합류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6세기 국어에 있어서 비어두 음절에서의 /ɨ/와 /ɨ/의 합류는 부분적 합류였으므로 이 경우 /ɨ/는 부분 중립모음이다.

바쁘-(奔): [pap'asə]~[pap'ese]

맨들-(作): [mɛndirasə]~[mɛndirasə]~[mandirasə]

따듬-(整) [t'adimasə]~[t'adimesə]~[tadimasə]

(25)의 어휘들은 소위 /ɜ/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간의 활용예이다. (25a)의 예들은 '-어X' 계열의 어미가 선택되고 있어, /ɜ/가 1음절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25b)의 경우에는 '-아X' 계열의 어미가 선택되고 있어, 어간 끝음절 모음 /ɜ/가 양성의 조화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비어두 위치의 모음 /ɜ/가 불투명한 조화 자질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하여 기세관(1996:157-158)에서는 '-어/어X'계 어미와의 결합과정에서 어간 끝음절 모음 /ɜ/가 탈락함으로써 어간이 교체되는 경우, 그 교체형의 음절 구조에 따라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따르-, 물르-, 쥘르-, 불르-, 흘르-' 등과 같은 소위 /ɜ/ 불규칙 용언의 어간이 '따르, 물르, 쥘르, 불르, 흘르' 등으로 교체될 때에는 교체 어간의 끝모음이 양모음일 때는 '-어X' 계열의 어미가, 음모음일 때는 '-어X' 계열의 어미와 교체형의 구조에 따라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따를 것 같으면, 결국 비어두 음절의 모음 /ɜ/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고, 어두 음절의 모음이 갖는 조화 자질의 확산에 의해 어미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국어의 모음 조화가 어간 끝음절 모음의 종류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이근규 1986:78-79), 이러한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어두 위치의 모음 /ɜ/가 갖는 조화 자질의 불투명성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고 본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중세국어 단계에서 음소로 존재했던 모음 '·'(/N)의 비음운화와 관련이 있다. 주지하는 바, /N/는 16세기 말엽에 이르러 제1단계의 소실, 즉 비어두 위치의 모음 /N/가 /ɜ/와 합류하게 되는 변화를 완성하게 된다(이기문 1972b:118-119).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¹³

(28) a. 거르-(漚): 술 거르던 頭巾이로다 <杜 초 十六 22>

쓰르-(解): 옷식 띄를 쓰르지 말어 <女 四三 13>

누르-(歷): 諸天을 누르건 마흔 <法 四 142>

두르-(圓): 圓는 두를 써오 <月 二 32>

무르-(軟): 地酥 혹은 무르다 <雜 物 五 土>

흐르-(流): 늪므를 여러 가로로 흐르게 우노라 <杜 초 八 37>

¹³이 예들은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에서 가져왔다. 원전의 약호 또한 이 책의 것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18 강 회 속

- b. 모르-(不知): 구근이불 모르고 <석九 11>
- 마르-(渴): 장쉬 목 마르물 이라디 아니하며 <三略上 17>
- 보르-(塗): 굴으로 보르고 <석六 38>
- 오르-(登): 무리 病이 기퍼 山脊에 몸 오르거늘 <용 109>

위의 예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어간 끝음절 모음 /i/가 음성의 조화 자질을 지니는 (25a)의 예들은 (28a)의 예처럼 중세국어 단계의 /i/에서 기원된 것인 반면에, /i/가 양성의 조화 자질을 지니는 (25b)의 예들은 (28b)의 예처럼 /ɛ/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25a)의 예는 본래의 모음 /i/가 갖는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25b)의 예는 합류를 경험하기 이전의 /ɛ/가 갖는 양성의 조화 자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비단선적 음운 이론의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8b)의 예 가운데 ‘ㄹ르-(分)’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29)	16세기 말 이전	→	16세기 말 이후
모음 조화 총렬	[+양성]		[+양성]
	⋮		⋮
분절음 총렬	k a r ʌ → ‘ㄹ르-’		k a r i → ‘ㄹ르-’

위의 도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16세기 말에 이르러 분절음 총렬의 음소 /ɛ/가 /i/와의 합류로 인해 소실되고 난 후에도, 모음 조화 총렬에 존재하는 [+양성]의 조화 자질은 변화하지 않고 새로운 분절음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성조 언어에서 발견되는 성조의 상존성(tone stability)¹⁴과 동일한 개념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26)의 예 역시, (25)의 예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이다. 즉, (26a)와 (26b)의 예에 나타나는 어간 끝음절 모음 /i/는 그 기원이 각각 다른바, (26a)의 단어들은 본래의 모음 /i/가 갖는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고 있는 데 반해, (26b)의 단어들은 합류를 경험하기 이전의 /ɛ/가 갖는 양성의 조화 자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7)의 예가 보여 주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원적으로 /ɛ/를 어간 끝음절 모음으로 갖고 있었던 어간 다음에 음성형 어미인 ‘-어X가’ 연결되는 경우도 보

¹⁴성조 언어에서 발견되는 성조의 상존성에 대해서는 Goldsmith(1976)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성조의 ‘상존성’이란 모음이 비성절음화하거나 어떤 음운 규칙에 의해 삭제되고 난 후에도 지니고 있던 성조는 소멸하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다른 모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인다. 즉 [kallasə], [t'arasə] 등의 활용형 외에 [kalləsə], [t'arəsə] 등과 같은 활용형들이 변이형으로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용형들은 개신형과 보수형들이 서로 공존하여 경쟁을 보이는 것으로, 개신형의 출현은 이 어휘들이 음성모음화를 수행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27)의 예에서 보이고 있는 음성모음화는 어간의 첫 음절 모음이 어떤 모음인가에 따라서 그 속도를 달리 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즉, 첫 음절 모음이 /o/인 (25b), (26b)의 예들은 아무런 개신적 음운 변화를 수행하지 않았음에 반하여, 첫 음절 모음이 /a/인 (27)의 예들은 음성모음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4.1의 기술에서 어간말 모음이 /o/인 경우에는 어간의 음절 수나 음절 구조에 상관없이 활용형의 어미가 항상 /-아X/로 실현됨으로써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하여, 어간말 모음이 /a/일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음성모음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과 상호 관련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기술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방언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음 조화의 변화 방향은 대체로 음성모음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간말 모음이 /o/인 경우에는 이러한 음성모음화가 가장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4.3.2 어간 끝음절 모음이 /u/인 경우'

4.2.3에서는 1음절 어간의 경우, 모음 /u/는 음절 구조와 상관없이 음성의 조화자질을 지님으로써 '-어X' 계열의 어미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어간이 2음절 이상일 때에는 모음 /u/와 마찬가지로 /u/가 부분 중립모음의 성격을 띤다.

- (30) a. 거두-(收): [kəduəsə] ~ [kadwəsə] ~ [kədəsə]
 미루-(延): [miruəsə] ~ [mirwəsə] ~ [mirəsə]
 이루-(成): [iruəsə] ~ [irwəsə] ~ [irəsə]
- b. 가두-(囚): [kadwəsə] ~ [kadəsə]
 가꾸-(育): [kak'wəsə] ~ [kak'əsə]
 나누-(分): [nanəsə] ~ [nanəsə]
 바꾸-(換): [pak'əsə] ~ [pak'əsə]
- c. 배우-(教): [pEwəsə] ~ [pEəsə]
 채우-(使滿): [c^hEwəsə] ~ [c^hEəsə]
 태우-(使燒): [t^hEwəsə] ~ [t^hEəsə]
 채우-(使宿): [čEwəsə] ~ [čEəsə]
 깨우-(使醒): [k'Ewəsə] ~ [k'Eəsə]
- b' [kadwəsə] ~ [kadəsə]
 [kak'wəsə] ~ [kak'əsə]
 [nanwəsə] ~ [nanəsə]
 [pak'wəsə] ~ [pak'əsə]
- c' [pEwəsə] ~ [pEəsə]
 [c^hEwəsə] ~ [c^hEəsə]
 [t^hEwəsə] ~ [t^hEəsə]
 [čEwəsə] ~ [čEəsə]
 [k'Ewəsə] ~ [k'Eəsə]

위의 예에서 (30a)의 경우에는 어간 끝음절 모음 /u/ 다음에 ‘-어X’ 계열의 어미가 연결되고 있어, 1음절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가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는 모음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30b, c)의 경우에는 /u/가 양성(陽性)의 조화 자질을 지니므로써, ‘-어X’ 계열의 어미가 연결되고 있다.

(30b, c)의 경우에는 (30b', c')와 같은 변이형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화자와 세대, 또는 말의 스타일에 따른 변이형으로서 주로 젊은 세대의 경우에, 또는 동일 화자의 발화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발화가 아닌 신중한 말의 스타일(careful speech style)에서 발견된다.

(30b', c')의 형태를 제외해 놓고 보면, 우리는 (30a)의 형태와 (30b, c)의 형태간에는 음운론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지역 방언에서는 동일한 어간 끝음절 모음 /u/가 (30a)의 경우에는 음성의 조화 자질을, (30b, c)의 경우에는 양성(陽性)의 조화 자질을 갖는 것이다.

기세관(1996:158)에서는 (30b)와 같은 예에 대하여 (31)과 같은 /u/ 탈락 규칙을 가정하고, (25)의 예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아/어X’계 어미와의 결합 과정에서 끝모음이 탈락함으로써 어간어 교체될 때는 이 교체형의 음절 구조에 따라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31) /u/ 탈락 규칙(기세관 1996:156)

바꾸 + 아 → 바까
 나누 + 아 → 나나
 가두 + 아 → 가다
 가꾸 + 아 → 가까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동사의 어간들은 어미와의 결합에서 어간 끝음절 모음 /u/가 탈락하게 되는 결과, 어미의 조화 자질이 첫 음절의 모음이 갖는 조화 자질에 동화함으로써 ‘-어X’계열의 어미와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세관(1996:159)에서는 (30c)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간의 끝음절 모음 /u/가 어미 ‘-어’와 만나면 /u/가 ‘w’로 활음화하면서 ‘워’로 축약되는데, 어간의 제1음절 모음이 양모음 ‘ㄷ, ㅂ’이면 젊은층에서는 이 ‘워’가 다시 ‘와’로 바뀌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해 보면, (30b)의 어휘들에서 비어두 위치의 /u/는 모음

¹⁵여기에서 그는 가령 ‘태워>태와’의 변화에 대하여 이 방언에서의 모음조화가 양성모음화라는 역사적 변화 과정을 겪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어휘들이 겪었던 국어사적 발달을 고려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화와 무관하고 어두 음절의 조화 자질이 후행 어미와의 결합을 결정하는 데 기능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형태소 경계에서의 국어의 모음 조화가 대체로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지나는 조화 자질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화하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1)에서 가정하고 있는 어간 끝음절 모음 /u/ 탈락 규칙의 적용 영역이 자의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즉, 동일한 어간 끝음절 모음 /u/가 (30b)에서는 탈락이 되는 반면, (30c)에서는 활용화하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의 어휘들이 겪어온 역사적 발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30a)와 (30b, c)의 예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엄연한 역사적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 (32) a. 거두-(收): 帳을 거두니 <杜초十五 30>
 미뤄-(延): 오늘은 미뤄고 니일은 모리 미뤄니 <朴新一 35>¹⁶
 이루-(成): 므스일 이루리라 十年지이 너를 조차 <靑 p.16>
- b. 밧고-(換): 시절이 밧고와 가물 놀라노니 <杜초八 46>
 갖고-(栽培): 술 갖고니 亭子 | 로다 <靑 p. 87>
 가도-(囚): 獄에 가도와 罪니를 마더며 <석 九 8>
 난호-(分): 이 짜자은 序品이니 품은 난호의 져여곰 뉘씨라 <석十三 37>
 비호-(學): 상네 갓가비 이서 經 비호의 외울씨니 <석六 10>
 치오-(使滿): 바바로 이불 치오노니 <永嘉上 22>
 티오-(使燒): 나라돈는디시 날로 히여 노피 티오니라 <杜초八 57>
 재오-(使宿): 호룻밤 재오니의 <數간 一 8>

위의 예들이 확인하여 주듯이, (30)의 예들은 역사적 기원에 의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30a)의 예들은 기원적으로 /u/를 어간 끝음절 모음으로 가진 반면, (30b, c)의 예들은 /o/를 어간 끝음절 모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원적 차이는 근대국어 단계에서 일어난 비어두 음절의 'o > u'의 변화, 즉 /o/의 모음 상승(vowel raising)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이 지역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j/와 마찬가지로 /u/가 부분 중립모음이 된 계기는 바로 이와 같은 'o > u'의 변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¹⁶현대국어의 '미루-(延)'에 대응하는 역사적 형태로는 여기에서 예로 든 「朴通事新釋諺解(1765)」의 '미뤄-'만을 확인하였다. 현대국어의 '미루-'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발달한 것이라면, '미뤄-'의 둘째 음절의 모음 /uj/가 /u/로 단모음화한 결과 '미루-'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u/가 갖는 조화 자질에는 방언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부방언의 경우에는 /u/가 중립모음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어두 위치에서건 비어두 위치에서건 항상 음성 모음의 자질을 갖는다. 앞의 (30)의 예에서 (30b, c)와 (30b', c')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이와 같은 방언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부방언의 경우에는 (30b, c)에서처럼 /u/가 양성외의 조화 자질을 갖는 경우는 보이지 않고, (30b', c')와 같이 음성의 조화 자질을 갖는 경우만 보이는 것이다. 유창돈(1964:173-175), 남광우(1970:98-99)에서는 'o > u'의 변화를 모음 조화의 붕괴를 초래한 '음성 모음화'라고 보고 있는데, 중부방언의 경우에는 /u/의 중립성이 사라지고 그와 같은 음성 모음화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장흥 방언을 대상으로 용언의 어간과 활용형 어미 '-아/어X'간에 나타나는 모음 조화의 양상과,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방언이 겪고 있는 모음 조화의 발달 과정 및 그 변화 방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간 끝음절 모음이 양성외의 조화 자질을 가짐으로써 어미가 '-아X'로 실현되는 경우는 첫째, 어간 끝음절 모음이 /o/인 경우, 둘째, 어간 끝음절 모음이 /a/인 개음절 어간의 경우, 셋째, 어간 끝음절 모음이 /u/인 일부 어휘의 경우, 넷째, 'ㅂ'불규칙 동사 어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규칙적인 모음 조화를 보여주는 것은 어간 끝음절 모음이 /o/인 경우에 국한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음절 구조나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모음 조화가 결정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양성외의 조화 자질을 지니고 있었던 어간의 모음 조화가 음절 구조나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양성외의 모음 조화가 더 이상 규칙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차로 음성모음화에 의한 어미의 단일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ㅂ'불규칙 동사 어간들은 어간말 모음의 종류나 어간의 음절 수 등과 관계없이 '-아X' 계열의 어미만을 취함으로써 음성모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다른 어간과는 달리, 통시적 양성모음화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간 끝음절 모음 다음에 음성형 어미인 '-어X'가 연결되는 경우는 '-아X'형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모음에 해당된다. 즉 끝음절 모음이 /a/인 폐음절 어간을 비롯하여, 모음이 /e, u, ɛ, ø, ü, i, i/인 어간의 경우에 그 어미가 '-어X'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국어의 모음 조화가 음성모음 쪽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끝음절 모음이 /a/인 폐음절 어간이나 전통적인 중성모음 /i/가

음성모음화하고 있는 예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모음 /ɨ/, /w/는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조화 자질을 지니는데, 1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음성 자질을 지니는 이들 모음이 2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중립모음의 자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모음 /ɨ/, /w/가 중립모음, 정확히는 부분 중립모음의 자질을 갖게 된 것은 'A > i', 'o > u'와 같은 역사적 모음 변화와 관련된다. 일정한 모음들이 통시적인 음운 변화를 수행하고 난 후에도, 변화를 겪기 이전의 모음이 가지고 있었던 조화 자질이 유지되는 것은 일종의 상존성(stability)으로서, 모음 조화가 별개의 자립적 층열에 존재하는 조화 자질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숙. 1994.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사학위논문.
 _____. 1995. "전남 방언의 준말에 대한 고찰: 진도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4.
 고영진. 1991. "형가리어의 모음 조화," 어학 18, 전북대 어학연구소.
 기세관. 1986. "光山地域語의 音韻體系-30代와 40代 以上の 母音體系를 中心으로-," 어문논총 9, 전남대학교 어문학연구회.
 _____. 1996.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先濟語文 2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성규. 1989. "活用に 있어서의 化石形," 주시경학보 3.
 김완진. 1971a.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계약," 학술원 논문집 10.
 _____. 1971b.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_____. 1978. "모음체계와 모음 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_____. 1986. "모음 조화의 예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6.
 남광우. 1973a. "敬信錄諺釋 研究," 國語國文學 49-50.
 남광우. 1973b. "모음 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62-63.
 도수화. 1964. "모음 조화 연구," 어문연구 4, 충남대 어문연구회.
 _____. 1970. "모음 조화의 오산 문제,"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박종희. 1985. "모음 조화의 붕괴 요인에 대하여," 羨鳥堂 金炯基 先生 8旬紀念 國語學論叢. 창학사.
 배주채. 1991.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소강춘. 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송철의. 1993. "언어변화와 언어의 화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유창돈. 1964a. 李朝國語史研究. 선명문화사.
 _____. 1964b.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근규. 1986. 중세국어 모음 조화의 연구. 창학사.
 이기문. 1968. "모음 조화와 모음체계,"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율유문화사.

24 강 회 속

- _____. 1971. "모음 조화의 이론," 어학연구, 7-2.
- _____. 1972a.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_____. 1972b.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_____. 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 이병건. 1995. 음운론 논문집. 한신문화사.
- 이승재. 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 최명옥. 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 接辭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국어학회.
- _____. 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 p- s-, t-變則動詞를 中心으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 _____. 1992.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 부사형 어미 '-아X'의 모음 조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 _____. 1993. "경북방언의 모음 조화,"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최전승. 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_____. 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 Katamba, F. 1989. *An Introduction to Phonology*. Longman.
- Lee, Sang-Oak. 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20-4, Seoul National University.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501-759